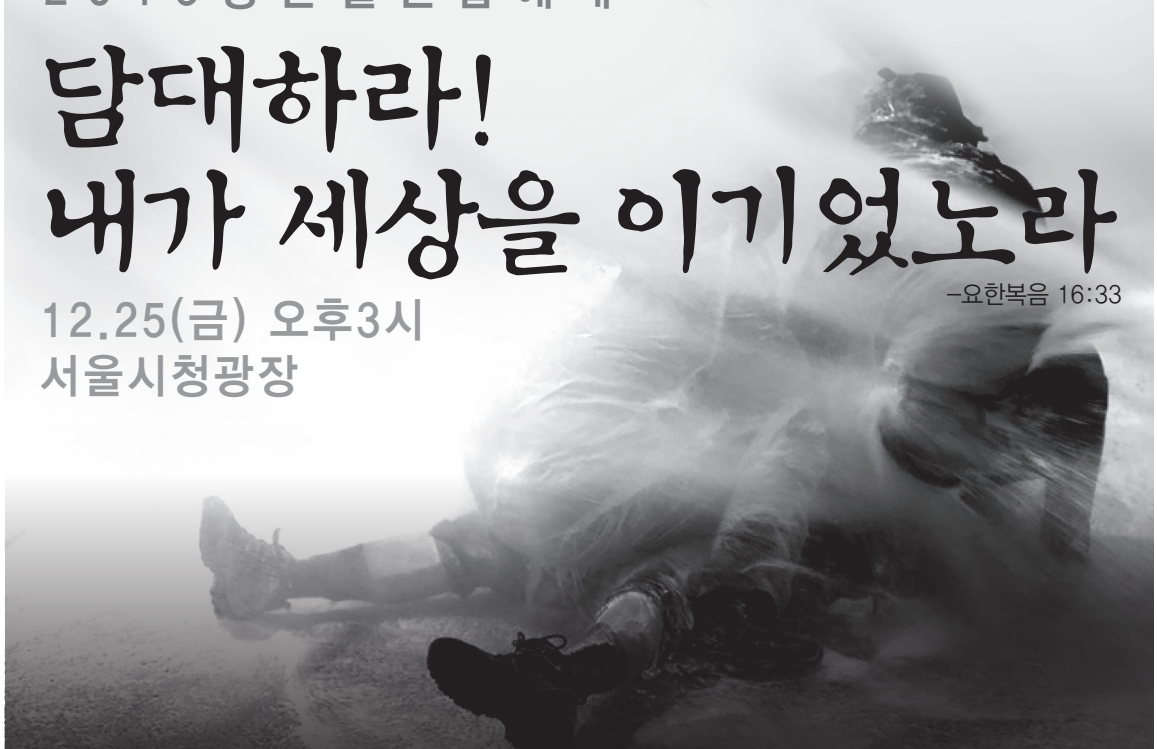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  
2015성탄절연합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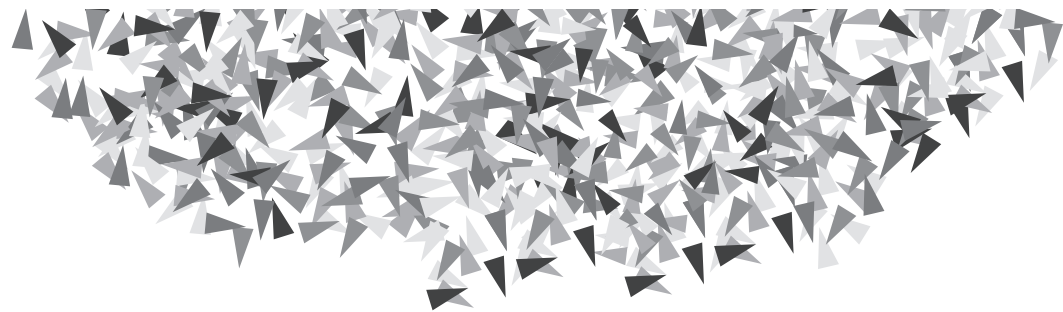
#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2.25(금)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

-요한복음 16:33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성탄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 2015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연합예배

인도 : 홍윤경 (노동선교부장, 영등포산업선교회) | 반주 : 함지혜 (평화산책)

## 여는시

구세주 (헤르만 헤세)

매번 다시 그는 인간으로 태어나,  
경건한 귀에다 말하고, 귀먹은 귀에다 말하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가는 새로이 우리에게서 잊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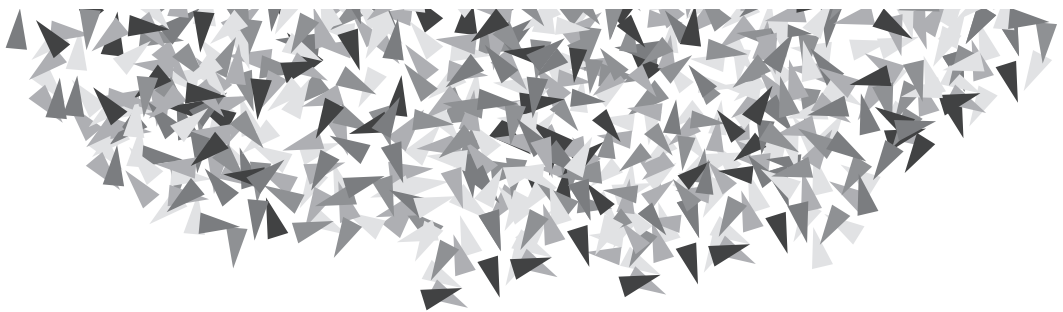
매번 다시 그는 외로이 일어나야만 하고,  
모든 형제의 고통과 동경을 짊어져야만 하며,  
항상 그는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매번 다시 하느님은 예고하려 하고,  
천국의 것은 죄인들의 계곡 속으로,  
정신은, 영원한 것은 육체 속으로 스며들고자 한다.

매번 다시, 오늘날에도,  
구세주는 축복을 주려고 오고 있다,  
우리의 걱정과, 눈물과, 질문과, 한탄을  
조용한 시선으로 맞이하고자,  
하지만 그 시선 우리는 감히 대하지 못하니,  
오직 어린이의 눈만이 그 시선 감당하기 때문이다.

## 사전행사

- 1. 김영준(가수, 인디밴드 꼬꼬문)      우리 집에 오시려면 외 2곡
- 2. 윤광호(목사)                              하얀 눈이 내리면 외 2곡



## 모임

‡ 표시는 일어서서

‡ 입례 찬송 ..... 가난한 이름들의 기도..... 다함께  
(순서자들은 십자가를 들고 입장)

1. 내가 눈을뜨게 하 소 서 내가 눈을뜨게 하 소 서 저  
2. 내가 귀를열게 하 소 서 내가 귀를열게 하 소 서 저  
3. 내가 일어서게 하 소 서 내가 일어서게 하 소 서 저

깊 아 길      고깊      은      어둠속에서      내가 눈을뜨게 하 소 서  
                -      침묵속에서      내가 귀를열게 하 소 서  
                -      추위속에서      내가 일어서게 하 소 서

‡ 촛불점화 ..... 말은이  
이 빛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소망, 기쁨, 사랑, 평화, 구원의 빛입니다.

‡ 예배로 부름 ..... 인도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  
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  
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  
화로다.(눅2:10-1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가정에서, 거리에서, 공중에서, 바다에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성을 향한 자유와 희망의 소식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강박하고 세상은 불의와 폭력으로 우리를 에워싸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곤궁을 잠재우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함께 예배합시다.

‡ 찬송 ..... 만백성 기뻐하여라 ..... 다함께

말씀

오늘의 기도 1 [구속자를 위한 기도] ..... 조정현 (목사, 송현샘교회)

오늘의 기도 2 [공동기도] ..... 다함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이 환호하고 땅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

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불안, 눈물, 탄식, 함성이 가득 찼던 이곳에서 저희는 이 시대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예배합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두 손을 모읍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소서.

하나님, 불의하게 고난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소서. 당신의 사랑과 창조 의 신비에 감탄할수록 우리는 이웃의 궁핍과 고통에 눈뜨게 됩니다. 주님은 배고픈 이들에게 양식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묶인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감사주십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비천한 인간의 바닥으로 내려오신 자비하신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웃과 이 땅 모든 생태계의 슬픈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경계 없는 연민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채우기보다 비우는 인내로, 소유를 줄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계의 신념들—돈과 권력, 권위, 시기심, 자기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어 죽기까지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소서.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들과 그 아픔들, 거리의 냉기 속에 잠자는 이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나라를 잃은 채 몸과 마음으로 곤궁에 처해 있는 이들, 사회의 냉소에 상처 입은 모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이 생각날 때 등을 돌리게 만드는 비굴함과, 보고도 모른척 지나가는 무관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는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억누르지만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진동소리에 깨어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맞잡은 따뜻한 손으로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성탄의 기쁨이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선한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사르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읽기 ..... 요한복음 16장 33절 ..... 인도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특별찬양 ..... 내 영혼 바람 되어 외 1곡 ..... 평화산책

말씀듣기 .....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박종덕  
(사령관, 구세군대한본영)

드림

봉헌위원 : 김민아, 김수연, 김준호, 류광민, 류광현, 안주영, 이동진, 조성훈, 조윤기

봉헌사 ..... 인도자

오늘 드린 헌금은 고난 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쓰여 집니다.

봉헌찬송 ..... 귀중한 보배합을 ..... 다함께

1. 귀중보배합을  
2. 주께서주신  
3. 들에서함을  
을하며  
주앞에드리  
한없이크오  
양치던목자  
들  
우리의몸과  
주께서의주  
하늘의빛난  
암것  
영  
도를  
광  
다함개바치  
감사고히서바치  
보고서늘  
세  
진기리는오  
천뽀은충  
사의의기  
묘만  
하  
소  
고  
고  
식  
사소랑은성  
목망는가불  
들  
결  
변  
고  
해  
해  
서  
주께서탄  
정성과만  
찾아와경  
생  
을  
배  
하  
다  
하  
신  
해  
며  
거룩한날  
경배를드  
영광을돌  
리  
렸  
세  
세  
네

봉헌기도 ..... 다함께

인도자 :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회 중 : 저희의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인도자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예수께 감사하며 이 여물을 드리오니

회 중 : 저희의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인도자 : 비탄에 빠진 이들의 삶을 위로하며 도우시는 성령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회 중 : 저희의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인도자 : 이 땅의 슬픔을 치유하는 일에

회 중 : 이 예물이 쓰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인도자 : 이 땅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회 중 : 이 예물이 쓰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인도자 : 자유와 정의의 빛을 쫓아 살아가고자 모인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 중 :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집     례 : 김형원 (목사, 하나의 교회)

성찬위원 : 구교형, 김신애, 길형준, 박성진, 박승렬, 유미란, 유성식

윤병민, 이광석, 이동환, 이혜진, 장용선, 전남병, 홍보연

성만찬으로의 초청 ..... 다함께

집례자 : 이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우리는 이 식탁을 함께 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거룩한 식탁에 초청받은 우리들은 겸손함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 중 : 주님! 이 귀한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미를 받으소서.

성령 임재의 기원 ..... 다함께

집례자 : 주님, 이 성만찬 위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보내 주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하여 이 감사의 음식을 변화시켜,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소서.

회 중 : 성령이여 오소서!

성만찬 찬송 ..... 유월절 때가 이르러 ..... 다함께

에 고 라 고 약 라  
밤 리 으 리 언 여  
날 드 먹 드 새 하  
던 사 아 사 한 각  
시 감 받 감 위 생  
리 게 게 시 를  
팔 부 함 다 희 나  
주 천 다 또 너  
러 는 몸 고 피 에  
르 시 한 들 한 때  
이 리 위 잔 위 델  
가 스 를 에 를 에  
때 다 너 손 너 입  
절 들 은 에 은 을  
월 지 것 후 잔 잔  
유 천 이 그 이 이  
1. 유 천 이 그 이 이  
2. 유 천 이 그 이 이  
3. 유 천 이 그 이 이  
4. 유 천 이 그 이 이  
5. 유 천 이 그 이 이  
6. 유 천 이 그 이 이

네 네 네 네 라 라 아 멘  
섰 썼 썼 썼 리 리  
떼 주 하 하 주 되  
을 게 라 씹 어 명  
떡 에 하 말 부 생  
서 들 억 어 해 한  
게 자 기 열 은 원  
주 제 날 입 큰 영  
때 서 며 머 로 에  
인 어 하 나 대 맘  
모 떼 전 빛 그 네  
리 을 음 골 약 피  
둘 떡 죽 얼 언 내  
자 서 의 의 한 과  
제 게 자 님 원 몸  
온 주 인 주 영 내

제정사 ..... 다함께

집례자 :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회 중 : 그러므로 이 떡과 포도주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 다함께

(성찬위원 자기 위치로 이동)

집례자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회 중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집례자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회 중 :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집례자 :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회 중 :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불의에 맞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승리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례자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회 중 :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며, 이를 온전히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집례자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 중 : 고난 받는 연약한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죄, 무능한 정부를 향해 행동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탐욕을 따라 부정과 불법에 동조하며 무책임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집례자 :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 중 : 삶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용기를 내려놓는 어리석음을 물리치게 하여 주소서.

집례자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회 중 :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 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분병분잔례 ..... 다함께

집례자 : (빵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회 중 : 이것은 고통의 명예를 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집례자 : (잔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회 중 : 이것은 악하고 온기 없는 세상에서 모서리로 밀려나 떨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함께 :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시여,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만찬 나눔 ..... 다함께

집례자 : 우리가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양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합시다.

회 중 : 아멘.

찬송 ..... 이 떡을 나눔은 ..... 다함께

1. 이 떡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 이 니  
2. 이 잔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 이 니

그 대들 과 나 는 이제 한웃음 가 진 벗 이 라  
그 대들 과 나 는 이제 한웃음 가 진 벗 이 라

그 대들 과 나 한 하 늘 에 서 났 듯 이  
그 대들 과 나 의 가슴 에 한 피가 흐 르 고

그 대들 과 나 한 하 늘 을 살 듯 이  
그 대들 과 나 의 갈 곳 도 오 직 한 곳 이 라

감사의 기도 ..... 다함께

집례자 :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고난 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위로받고, 그 고난의 현상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참여한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  
를 따라 살아가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  
도합니다. 아멘.

회 중 :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 보냄

우리의 결단 ..... 호소문 낭독 ..... 맡은이

1. 서론, 결론 : 김영철 (사회위원장, 생평평화마당)
2. 민주주의 : 김진철 (사회부장, 향린교회)
3. 세월호 : 유경근 (집행위원장, 세월호가족대책위)
4. 국정교과서 : 나수빈 (학생,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
5. 노동개혁 : 방종운 (지회장,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6. 평화통일 : 송병구 (목사, 색동교회)
7. 교회개혁 : 김애희 (사무국장, 교회개혁실천연대)

결단찬송 ..... 천사 찬송하기를 ..... 다함께

1. 천사 찬송하기를 기록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2. 오늘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몸에  
3.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빛이  
보내세 구주 오 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기뻐 화답 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양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하여라 아멘

축도 ..... 김영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알리는 말 ..... 장병기 (목사, 성탄절연합예배준비위원장)

1.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연합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드러진 성탄헌금은 민주주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노동개혁, 평화통일, 교회개혁을 위한 곳에 쓰여 질 예정입니다.
3. [후원 안내] 국민은행 807701-00-009429 류순권(고난연합예배)
4. 오늘 예배에 관한 평가와 다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모임을 위한 사전 모임을 2016년 1월 12일(화) 오후 7시 기독교회관 2층 에 이레네 홀에서 모입니다. 관심을 가진 주최 단위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2015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연합예배 헌금사용처 : 세월호가족대책위(2,000,000원), LGU+노동자 외 2곳(1,000,000원)

## 담대 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16:33)

### 어둠 짙은 한국사회 및 교회를 향한 2015년 성탄절 메시지

2015년 올해도 옛적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하늘의 빛, 구세주 탄생을 절실히 염원하며 하늘을 쳐다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 물대포를 맞은 농민, 망루위의 노동자,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노숙인, 정신대 할머니 그리고 복讎 땅 주민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목자들입니다. 달라진 세상을 기대했건만 역사를 되돌려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권 탓에 오히려 억울한 눈물이 이 땅에 흥건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래 없는 나라의 징표들 역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을 앞세운 권력자들은 진실을 가리고 빛을 삼키고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합니다. 하지만 옳고 바른 세상을 바라는 민중, 시민들의 절절한 뜻이 파시즘의 그림자를 걷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을 이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 하라(요16:33)말씀합니다. 2016년을 위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세상을 이긴 예수가 잉태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긴 세월에 걸쳐 힘겹게 정착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으로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온 권력, 약자를 지키라고 준 힘이었던만 법(法)은 기득권 세력의 전유물이 된 탓입니다. 오늘의 정권은 망국적인 지방색을 되살려 기득권을 공고히 했고 소수 대기업을 대변했으며 친일, 반공주의자들을 편들고 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릅니다. 정부실책을 탓하며 약속을 지키라 항변했던 농민을 뇌사상태에 빠뜨렸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공망루, 사지(死地)로 몰아 세웠으며 법집행이란 이름하에 수많은 민주인사들에게 돈 폭탄을 통해 고통을 줬으니 민주주의가 실종된 결과입니다. 허접스런 종편을 통해 백성들의 귀와 눈을 어지럽혔고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공안 통치에 능했으며 부자들 편들어 권력연장만을 꾀한 이 정권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은 허울뿐 결코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조/중/동 신문으로도 모자라 인터넷 언론조차 통제, 감시하는 반민주, 파시즘의 망령을 부추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세상을 이긴 예수께서 내년 총선을 통해 반민주 세력을 추방시켜 이 땅을 옳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들어 낸 4.16 세월호 참사, 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600여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대책 등 그 무엇 하나 옳게 시행된 것이 없으니 이것이 국가인지 다시 물어야 하겠습니다. 본 참사를 목도한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전적 변화를 갈망했으나 오히려 현 정권은 백성들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겼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부족해서 유족들마저 종북세력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듯 4.16참사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에 근거한 총체적 변화 없이 한국사회는 한발자국도 내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덮고자하는 한, 현 정권의 실책과 오판은 역사에 크게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의 약자들과 사회적 불의에 둔감했던 죄악을 씻어내야 마땅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억울한 세월호 유족들의 눈물을 씻기라 명하시며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라 하십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죽었다 여겼던 과거의 망령들 역시 다시금 소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신 독재체제로의 회귀를 통해 국가주의적 폭력을 정당화할 목적에서입니다. 그렇기에 현 정권은 친일과 반민주세력, 독재체제를 옹호했고, 미화시켰으며 공공연한 사실로 만들고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꾀했습니다. 이는 역사해석과 교육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서 독재적 야욕의 명백한 실상이라 할 것입니다. 대다수 역사학자들이 글쓰기를 거부하고 시민들 다수가 저항하는 시점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대형 교회들과 성직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치욕적입니다. 군부독재 권력에 침묵하며 애완견 역할을 자처했던 지난 역사를 반성치 못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젊은 청소년들까

지도 권력에 의해 조작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예수 말씀을 따라 이제 교회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를 명백히 하여 역사의 시시비비를 밝히는 일이 우리 기독교인 소명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갈등이 극에 달한 위험사회로 치달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는 무제약적으로 보장했으나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에는 무관심으로 방치했던 탓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죽음에 이른 노동자들의 수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6배가 넘는다는 하니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사지로 내몰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 상태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시달렸고 상시적 해고 위협까지 받고 있으니 일상적 삶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바로 위험사회에 이르렀다는 구체적 지표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했고 성과 차등임금제를 만들었으며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연장시켰고, 파견대상을 확대시켰으니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본의 횡포에 맞서 노동인권을 지키고 노동자들 곁에 머물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정신이자 하나님 일이라고 믿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통일은 한반도에 사는 백성들 모두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남북 간의 대결과 갈등은 국가적 주권을 제약했고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요인이었으며 동아시아의 안정을 파괴시켜 왔습니다. 현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을 야기하는 미국 패권주의에 편승했고, 그 구도를 악용하여 한국 사회 내의 다양한 민주적 열망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청정한 강정지역을 군사기지로 내준 것이 구체적 실례이며,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종북몰이’ 역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유린되고 실종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체제의 유지, 강화를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야기 시키는 남북정부 모두를 향해 예수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상호 막힌 담을 열고 절단된 줄을 이으라!’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땅의 교회역시 어둠을 뚫는 한줄기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았으나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기에 어둠 짙은 이 사회를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들 스스로 눈뜨지 못했기에 세상을 옳게 이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길 만큼 담대하라 했건만 교회는 세속적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개혁의 주체였던 교회들이 어느 새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목마른 세상은 교회가 주는 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눈앞임에도 자신과 밖을 향해 저항할 것이 무엇인 지를 묻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복음화 보다 교회의 복음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2015년 성탄을 맞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타락시킨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못 약자 곁에 서지 않고 자본주의적 성장에 혼을 빼앗긴 지난 세월을 통회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보탬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세상에 약속합니다.

2015년 성탄을 맞는 한국교회는 밀양의 눈물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밀양송전탑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전기가 전선만이 아니라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전탑이 원자력 발전의 가시적 드러남이란 것도 자각했습니다. 하나님 피조물 일체를 죽음의 공간으로 만드는 원자력이 하나님 신앙에 적대하는 것임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예수는 이렇듯 어둠 짙은 세상, 한반도 땅에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2015년의 예수는 역사를 왜곡하며 거짓으로 진리를 묻는 사회와 맞서 싸워, 이기라 하십니다. 성탄의 힘으로 우리 모두 새로운 한해를 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힙시다.

2015년 12월 25일

2015년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연합예배 참가자 일동

문화광호

D.S.

15



## 상록수

김민기 글, 곡

C E Am Dm G

저서우 들렷리 에고들 푸쓰가 르린것 솔지비 일나홀 을날척 보틀어 라도도

C E Am F D<sup>7</sup> G

돌다손 보시에 는는손 사다맛 램시잡 도는고 하오눈 나지물 없말홀 는라리 데고니

C E Am Am<sup>7</sup> F Dm<sup>7</sup> G

비땀우 바흘리 램리나 불리갈 고라길 눈깨멀 보우고 라치힘 처리해 도라도

Dm A Dm Em Am Dm<sup>7</sup> G<sup>7</sup> C

온거깨 누치치 리른고 끝들나 까판아 지에가 맘솔끝 껏있내 푸되이 기리리 라라라

Dm A Dm Em Am Dm<sup>7</sup> G<sup>7</sup> F C

깨치고 나아가 끝내이기 리라